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교회 광고
 - 주일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 수요일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교회 현장예배에 참여하실 때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예배는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다음 주(9월 20일) 현장 주일예배 안내

1부예배(10시) 우드사이드, 플러싱 구역

2부예배(11시 30분) 베이사이드, 롱아일랜드 구역

개인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9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 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09/13		송 섭		
09/20	김유순	권이남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부활신앙 본문: 마태복음 22장 23~33절

기도제목: 1. 성경적인 부활신앙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2. 부활과 천국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3. 이 땅의 삶보다는 저 본향에 초점을 맞추고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들어가는 말

기독교의 사후 세계관은 무엇이죠? 우리는 한 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그냥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 일단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부활은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1.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들은 지금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자이고 사회 지도층이고 그리고 힘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상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를 붙들고 있던 사두개인들을 위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전이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예수님께 부활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흔들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에, 사두개인들은 치밀한 계획아래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믿고 살았기에, 성전에서 강도짓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였기에, 예수님 당시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강도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 부활과 천국을 믿는다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도 믿습니다. 천국의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한 교제는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나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돌아갈 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바울처럼 저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천국도 믿지만 왜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 삶에 그토록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요?

고전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일은, 모든 수고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가는 말

우리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본향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부활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았던 제자들처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루 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작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8시PM)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여호수아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나는 예배자입니다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6번(이사야 40장)	
찬 송 Hymn	344장	
기 도(Prayer)	1부: 박명자 권사 2부: 송 섭 집사	
성 경 Scripture	마태복음 22장 23~33절	
설 교 Message	부활 신앙	
▲ 헌 금 Offering		
▲ 찬 송 Hymn	270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